



제5회 고모리 기술교육 및 세미나 개최 인쇄기 개발 방향 제시·매엽잉크젯 인쇄물 전시

일진PMS(주)(대표이사 박경재)는 인쇄기 오퍼레이터를 대상으로 인쇄기술과 효율성 향상을 위해 매년 고모리 기술교육 및 세미나를 개최해오고 있다. 올해 세미나는 지난 11월 9일 파주출판단지내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에서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진행됐다.

글 | 임남숙 기자 sang@print.or.kr

일진PMS(주)는 인쇄기 오퍼레이터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5회 고모리 기술교육 및 세미나’를 개최했다. 고모리 인쇄기 오퍼레이터의 기술향상과 기계 가동 및 생산효율성 향상을 목적으로 진행된 이번 세미나는 이재일 이사가 기계관련 유지보수에 대해, 김성열 부장이 전기관련 유지보수에 대해 교육했다. 특별 강의로는 고모리코퍼레이션 카와나 시게키 매니저가 ‘살아남기 위한 KPM’, 고모리코퍼레이션 DPS 비즈니스그룹 사업개발 담당 준 키쿠치 매니저가 ‘고모리 디지털 전략’에 대해 발표했으며, 협력업체 초청강연으로 아시아믹스 일본(구 로하스프린트) 후추 히로노부 매니저가 ‘고품질과 비용절감을 실현하는 인쇄기 메인テナンス 방법’에 대해 교육했다.

정원식 이사는 인사말에서 “바쁘신 가운데 많은 분들이 고모리 기술교육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다. 인쇄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러한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인쇄기에 대한

교육과 함께 인쇄 트렌드를 알 수 있는 세미나를 준비했다. 이 세미나가 인쇄인들에게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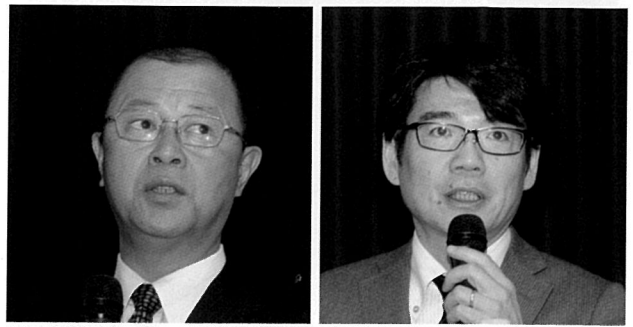
인쇄현장에서 생산성 향상 등 실현해야

고모리코퍼레이션 카와나 시게키 매니저는 ‘살아남기 위한 KPM’에서 “2009년의 인쇄사(4인 이상)는 1만4851개사로 6년 전인 2003년과 비교하면 4770개사가 감소했다. 연평균 795개사가 감소한 것이다. 반면 인쇄단가는 1992년 이후 2007년까지 15년 동안 약 24%가 하락했다. 영업매출이익율은 2007년 2.1%, 2008년 2.0%, 2009년 2.0%로 나타났다. 순이익율은 2008년 1.1%, 2009년 0.6%, 2010년 0.7%로 줄어들고 있다. 이에 적자기업은 자료제공 기업중 2008년은 31.8%, 2009년은 36.1%로 증가하고 있다. 일본은 1992년을 기점으로 인쇄업이 하락하고 있는데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감소, 경

제성장 정체, 미디어 다양화 등이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잡지의 경우 1997년 1조5644억엔에서 2011년 9844억엔으로 축소됐으며, 이는 14년 연속 축소되고 있다”라고 현재 일본 인쇄산업을 설명했다. 카와나 시게키 매니저는 10년 후 인쇄산업은 출하액이 24% 감소하고, 인쇄사 5000개사, 종업원수 약 8만 명이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상업인쇄는 2010년 2.3조엔에서 2020년에는 1.2조엔으로 48%가 감소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카와나 시게키 매니저는 “10년 후에도 인쇄사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매출이 12% 올라야 하고, 종업원은 8% 증가해야 한다.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인쇄 현장에서 기계고장 감소, 품질사고 감소, 생산성 향상에 따른 코스트다운을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자사진·매엽잉크젯·란다수성잉크젯 등 3부문 집중

고모리코퍼레이션 DPS 비즈니스그룹 사업개발 담당 준 키쿠치 매니저는 ‘고모리 디지털 전략’에서 “고모리는 디지털 인쇄기를 Impremia C80 토너방식 전자사진인쇄기, IS29 매엽잉크젯 인쇄기, 란다 수성 잉크젯 인쇄기 등 3가지 부문으로 전개해갈 예정이다”라며 “Impremia C80 토너방식 전자사진인쇄기는 코니카미놀타 OEM으로 고모리만의 장점을 부여하기 위해 간편한 색맞춤용 소프트웨어 K-Color Simulator(KCS)와 함께 판매한다. KCS는 오프셋 인쇄기를 기준으로 주변 기기들의 출력색을 매칭하는 데 도움을 준다. 비숙련자라도 간단하게 프로파일을 작성할 수 있다. 잉크젯 교정기의 경우 텔타E=0.8이하의 색차로 좁히는 것이 가능하다. ‘IS29 매엽잉크젯 인쇄기’는 코니카미놀타와 공동 개발했다. 코니카미놀타는 잉크헤드와 잉크를 공급하고, 고모리는 종이 이송장치, 기계 전체 조립, 테스트 후 판매까지 담당할 예정이다. 현재



특별강연을 하는 고모리코퍼레이션 카와나 시게키 매니저(왼쪽)와 준 키쿠치 매니저(오른쪽)

70% 정도 개발했으며, 내년 가을 출시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란다 수성 잉크젯 인쇄기’는 인쇄인이라면 누구나 관심을 가질만한 인쇄기다. 나노그래피 기술 라이선스를 란다로부터 공여받고 종이이송장치 및 기계 조립은 고모리가 할 예정이다”라고 설명했다.

IS29 매엽잉크젯 인쇄물 눈길

한편 이날 세미나에서는 ‘IS29 매엽잉크젯 인쇄기’로 작업한 인쇄물이 전시돼 눈길을 끌었다.

IS29는 UV잉크젯으로 LED램프로 건조한다. 해상도는 1200×1200dpi, 속도는 단면 3300sph, 양면 1650sph다. 인쇄가능한 종이두께는 단면은 0.06~0.6mm까지, 양면은 0.06~0.45mm까지로, 최대 용지 크기는 585×750mm다.

‘IS29 매엽잉크젯 인쇄기’의 가장 큰 특징은 일반 인쇄용지를 사전처리 없이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타사와 같이 추천 전용지가 없고, 프리코팅 같은 사전처리가 필요없어 종이 선택의 폭이 넓다. 또한 종이두께 범위가 넓어 상업인쇄에서 패키지까지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에 대응이 가능하다. 앞면 레지스터 정밀도는 0.1mm 이내다. ↻



고모리 기술교육 및 세미나에 참가한 인쇄인들